

기업

와이바이오-큐젠,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개발 MOU

기사입력 : 2018-10-04 15:07 | 수정 : 2018-10-04 15:07

바이오스펙테이터 김성민 기자

와이바이오로직스 면역관문억제제와 큐젠바이오텍 베타 글루칸 약물 병용 테스트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큐젠바이오텍과 면역항암 병용요법 치료제 개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협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와이바이오로직스 면역관문억제제와 큐젠바이오텍의 면역 활성약물을 함께 테스트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병용 치료 전임상(동물) 시험 ▲병용 치료 작용기전 및 바이오 마커 연구 ▲항암 치료 기술개발 및 정보 교류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을 함께 추진한다.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베타글루칸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투여 했을 때 항암기능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했다"며 "해외에서는 효모 베타글루칸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큐젠바이오텍 베타글루칸의 순도가 더 높다면 항암치료에서 우수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와이바이오로직스의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해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병용 약물로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대 큐젠바이오텍의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버섯에서 유래한 베타글루칸 개발해, 알코올을 쓰지 않는 정제법으로 90% 이상 순도의 버섯 베타글루칸을 제조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bios.co.kr

바이오스펙테이터

<저작권자 © 바이오스펙테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os.co.kr